KIHA NEWS

부산경남지역본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1월 13일(수)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양산 지역 근로자를 위한 보건사업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조광현 본부장, 박승철 교육사업팀장, 권태규 건강진단팀장, 이미은 차장과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인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협회의 건강진단, 보건교육 관련 일부 사업과정을 양산 현지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는 사업을 전담하고 복지관은 교육장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체와 근로자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보건인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관별 업무보고 진행

협회는 2021년도 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별 업무보고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1월 19일(화) 사업본부를 시작으로 2월 3일(수) 지역본부 및 센터까지 약 16일간 진행됐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각 팀의 2020년 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 방안으로 각 팀은 이를 공유했다.

2021년 직원교육 운영

협회는 2021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방침을 강화한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수립과 리더십교육(2~4급)을 통한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가 주요 골자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직무교육, 보수교육, 기관유지 및 기관평가 대비 교육,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이어 리더십교육(2~4급)과 CS교육이 추가됐으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신설돼 산업위생관리기술사와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화교육, 수강생 맞춤형 과정으로 개설

협회는 새롭게 개편한 2021년도 전문화교육과정을 1월부터 전국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기존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과정에 이어서 정신건강,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분야가 통합된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가 과정(24시간)을 신설했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기관 평가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16시간 전문화과정으로 ▲산업환기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물리적 인자(방사선, 소음) ▲작업환경측정 분석 등 5개 과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기관 평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안전보건교육'과정도 개설했다.

이번 2021년 전문화교육은 사전 수요도 조사를 통해 수강생 편의에 맞추어 일정과 시기를 조절하여 1, 2월과 7, 8월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각 기관들의 비수기를 고려해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전문화교육 인정과 동시에 관리감독자 교육도 면제되며, 24시간 전문화교육에 대하여는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도 동시에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전문화교육은 협회 에듀센터(www.edu.kiha21.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교육사업팀 02-2046-0512~17)